

찬 송 503장 다 같 이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

<예물바침>
(목사)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위엄과 영광이 다 주께 속하였나
이다.
(회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오니 우리가 주의 것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참조, 대상29:11)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성찬식

<통상교회력 성만찬>

파송

<교회소식>

<파송의 찬양> : 하나님의 부르심 (일어서서)

- (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서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 (2)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위탁의 말씀> (요일3:23)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축복> (빌4:7)

(목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너
희 무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회중) 아멘!

<후주>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설교 : “곡식을 거두고 초막에 머물다”
/ 레23:39-43; 고후4:7-15; 요7:37-43 >

✠ 교회소식 ✠

① 예배 : “**감사의 자리로 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다음 주일은 한 해의 결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니, 마음에 품어온 그 한 사람에게 용기 내어
손을 내밀어 봅시다.

2026 설교시리즈 “구원 그 이후”				
날짜	제목	구약	서신서	복음서
8월 23일	구원, 그 이후 (1) : 도피인가, 변혁인가?	렘 29:4-7	롬 8:19-23	마 5:13-16
8월 30일	구원, 그 이후 (2) : 종교적 열심인가, 일상 속의 공의와 자비인가?	암 5:21-24	약 1:26-27	마 23:23-24
9월 6일	구원, 그 이후 (3) : 배타적 혐오인가, 십자가의 환대인가?	온 4:8-11	엡 2:14-18	마 15:21-28
9월 13일	구원, 그 이후 (4) : 세상 속의 거룩, 분리주의인가 성육신의 참여인가?	사 58:6-9	빌 2:5-8	눅 5:27-32
9월 20일	구원, 그 이후 (5) : 세상을 대하는 방식, 기독교 제국주의인가 섬김의 십자가인가?	숙 4:6-10	고전 1:27-31	막 10:41-45
9월 27일	구원, 그 이후 (6) : 복음과 사회 구조 - 개인의 수양인가, 구조적 악과의 싸움인가?	미 6:6-8	엡 6:10-13	눅 4:18-21
10월 4일	구원, 그 이후 (7) :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 - 허무한 기다림인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인가?	사 65:17-23	벧후 3:8-13	마 25:34-40

- 추수감사주일 : 11일(주) 1:2부 예배 시 성찬식 및 고백다과회(2부 예배 후)

② 모임

- 전체제직회 : 4일(오늘) 2부 예배후, 본당
- 구역장 모임 : 4일(오늘) 오후 1시, 회의실
- 독거노인반찬배달 : 8일(목) 오전 10시, 친교실
- 구역모임 : 11일(주) 2부예배 후, 구역별 지정장소

③ 엘림아카데미 가을소풍 : 7일(수) 서울대공원 테마가든(10시 가회동주민센터 앞 출발)

④ 제35회 여전도회 주관 사랑의 맛잔치 : 25일(주), 친교실

⑤ 교우소식

- 개업 : 이광배 성도(새가족) “콜린스 북촌” (향수가게/ 종로구 북촌로 5길 26)

⑥ 식당봉사

- 4일(주) : 김연신 최은진 / 송홍식 박지윤
- 11일(주) : 황경선 유정희 / 이성희 이형섭



1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안동교회 1909년 3월 첫주일창립 성령강림 후 열아홉째주일

제782호

2026. 10. 04.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창조세계 보전의 해

구원, 그 이후(7)“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 허무한 기다림인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인가?”

마태복음 25:40

1992년10월, 휴거를 기다리며 모든 것을 버렸던 이들의 기다림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세상의 폐기가 아니라 새 창조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더디
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그린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는 소리가 그치고, 집을 짓고 포도를 심으며, 수고가 헛되지 않
은 땅입니다. 그 새 창조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왕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
니라,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의 열매입니다. 부요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작은 자가
되었고, 성찬의 떡과 잔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아직 예비신자였던 마르틴이 반쪽 망토를
나누었듯, 주님의 식탁에서 먹은 우리가 이제 주린 이웃에게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으시
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수
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소그룹 나눔 질문

1.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지금 나의 돈과 시간과 관계의 선택을 실제로 어떻게 바
꾸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달라지고 싶은 한 가지를 나누어 봅시다.
2.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에 비추어, 이번 주간
내가 예수님을 대하듯 나의 시간이나 재물(망토)을 잘라 섬겨야 할
주변의'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온라인주보



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57 (안국동)
57, Yunboseon-gil, Jongno-gu, Seoul, Korea
TEL. (02) 733-3395 FAX. (02) 733-3398
E-mail. office@andong-ch.org http://www.andong-ch.org

성령강림 후 열아홉째주일예배

1부 예배 : 오전 9시

인도 : 황영태 목사

개회예전

<인사>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우리 다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징울림> 말 은 이

<성경의 선언> (요15:16)

(목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개회송> (오르간)

<오늘의 기도>

(목사)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언제나 기꺼이 들어 주시며,
우리가 갈망하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기꺼이 주십니다.
풍요로운 자비를 쏟아 부어 주시고 우리 양심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용서하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재 없이는 우리가 감히 구할 수 없는 그 귀한 것들을 허락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34장 다 갈 이

<죄의 고백과 용서>

(1) 고백으로의 초청(히4:14-16)

(목사)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다같이 조용히 고백합니다.

(잠시 묵상기도)

(2) 죄의 고백

(다같이)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은 주님께 진실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하였나이다. 공의를 행하지 못하였으며, 인자를 사랑하지도 못하였으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지도 못하였나이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며,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풍성한 영으로 우리를 불도소서.

(3) 용서의 선언

(목사)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아시고, 평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회중) 아멘.

<평화의 인사>

(목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갈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후,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예전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

(목사)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시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며,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175장 다 갈 이

<구약의 말씀> 이사야 65:17-23(1047) 정확재 안수집사
(낭독하기 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신서 말씀> 베드로후서 3:8-13(386) 정확재 안수집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 씀 목 상 >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민 동 림 권 사
오르간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25:34-40(44) 정확재 안수집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침묵)

< 설 교 >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 - 허무한 기다림인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인가?』 황 영 태 목 사

<설교 후 응답> (계5:12)

(목사)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회중) 아멘.

<믿음의 확증: 신앙고백(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중의 기도> 목 회 기 도